

라보브의 두 가지 언어 변화 유형에 근거한 후르비츠의 제사장 자료 연대 결정 평가

김동혁*

1. 들어가며

1878년 벨하우젠(J. Wellhausen)이 『이스라엘 역사의 서설』(*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초판을 출간한 이후 한 세기 동안 고전적 문서설은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졌다.¹⁾ 예컨대, 1906년에 출간되어 지금도 널리 쓰이는 히브리어 사전 BDB는 단어들을 설명할 때 오경의 네 자료(J, E, D, P)를 실존하는 문서처럼 취급한다.²⁾ 그러나 1970년대 이후로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 고전적 문서설은 다는 그런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물론 여전히 이 이론은 가장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는 이론이고, 주요한 구약 입문서들 또한 오경 형성사를 논의할 때 이 이론에서 출발하긴 한다.³⁾ 그러나 BDB가 전제

* 연세대학교 조교수, 구약학.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서(NRF-2021S1A5A8069436), 2023년 유럽성서학회 연례학술대회(7월 10-13일, 이탈리아 시라쿠사)에서 발표한 원고를 발전시킨 것이다. 발표를 격려하고 준비에 도움을 주신 전재영 박사께, 또한 초고를 읽고 중요한 조언을 주신 홍국평 교수께 감사드린다.

- 1) J. Wellhausen, *Geschichte Israels* (Berlin: Reimer, 1878). 책 제목에 ‘서설’ (prolegomena)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2판부터였다.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2nd ed. (Berlin: Reimer, 1883). 2판의 영어 번역본은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J. Sutherland Black and A. Enzies, trans. (Edinburgh: Adam & Charles Black, 1885)이다.
- 2) 예컨대, **לְיָהוֹוָה**를 풀이할 때 제사장 자료(P)와 에스겔서에서만 사용된다고 말한다. BDB, s.v. “**לְיָהוֹוָה**.”
- 3) 예컨대, 콜린스(J. J. Collins)의 교과서를 보라. Collins, *Introduction to the Hebrew Bible*, 3rd ed. (Minneapolis: Fortress, 2018), 53-69.

것 같은 ‘사실’에 준하는 이론은 더는 없다.

오늘날은 오경의 형성에 관해 다양한 이론이 서로 경쟁한다. 우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승/편집비평가들은 기존의 비제사장 자료(non-P), 즉 전통적인 야훼 자료(J)와 엘로힘 자료(E) 중 상당 부분이 제사장 자료(P) 이후에 덧붙은 자료(즉, post-P)라고 주장한다.⁴⁾ 둘째, 소위 신자료비평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⁵⁾ 예컨대 베이든(J. S. Baden)은 고전적 문서설의 자료의 순서(J-E-D-P)를 고수하면서도, J와 E와 P의 결합이 두 번(J와 E의 결합, JE와 P의 결합)이 아니라 한 번이었다고 주장한다.⁶⁾ 셋째, 몇몇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 학자들은 제사장 자료가 강제 이주기 이전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밀그롬(J. Milgrom)은 “(일부 사소한 추가를 제외하면) 제사장 자료는 기원전 8세기보다 늦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⁷⁾ 그렇다면 이들이 제안하는 자료의 순서는 J-E-P-D가 된다.

위 학파들 간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학파를 제외한 나머지 진영들이 동의하는 지점이 있다. 즉, 벨하우젠의 고전적 이론, 신자료비평 학파, 유럽 중심의 전승/편집비평 학파는 제사장 자료가 후대의 자료라는 이해를 공유한다. 이는 공히 J-E-D-P 순서를 주장하는 고전적 문서설과 신자료비평이 그러하고, 제사장 자료 이후에 많은 비제사장 자료가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는 전승/편집비평가들도 그러

4) 예컨대, J. C. Gertz, K. Schmid, and M. Witte, eds., *Abschied vom Jahwisten: Die Komposition des Hexateuch in der jüngsten Diskussion*, BZAW 315 (Berlin: de Gruyter, 2002); T. B. Dozeman and K. Schmid, eds.,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SymS 315 (Atlanta: SBL Press, 2006)를 보라. 우리말로 된 안내로서 전재영, “민수기에 제사장 문서(P)가 존재하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1 (2019), 5-38(특히 7)을 보라.

5) 흔히 신자료비평이라 불리는 이론을 개관하고 비판한 연구로서, 홍국평, “소위 신자료비평에 대한 비판적 소고,” 『장신논단』 44:2 (2012), 151-172를 참고하라.

6) J. S. Baden, *J. E, and the Redaction of the Pentateuch*, FAT 68 (Tübingen: Mohr Siebeck, 2009), 99-195. 또한 Baden,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Renewing the Documentary Hypothesis*, AYBR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을 보라.

7) J. Milgrom,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 (New York: Doubleday, 1991), 3-13(인용은 5쪽). 또한 I. Knohl,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Fortress, 1995), 특히 71-101을 보라.

하다. 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의 경우 제사장 자료의 고대성을 강조한다.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의견을 견지하는 학자들이 크게 의존하는—그러나 다른 진영의 학자들은 외면하는—문헌학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버지 후르비츠(A. Hurvitz)이다.

후르비츠는 1982년에 단행본 『제사장 자료와 에스겔서의 관계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 오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출간했다.⁸⁾ 거기서 그는 제사장 자료의 연대를 새로운 방식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기존의 고등 비평이 아니라 언어의 형태를 살피는 방식으로 텍스트의 연대를 결정하고자 한 것이다. 후르비츠에 따르면 이 방식은 상상력이나 추론 등의 주관에 의존하지 않기에 과학적이며 객관적이다.⁹⁾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을 사용하여 후르비츠는 연대를 알기 힘든 성경의 책이나 텍스트 단위의 연대를 규정하고자 했다. 그가 다룬 텍스트 단위들에는 제사장 자료 외에도 시편의 개별 시들, 욥기 산문부, 전도서 등이 있다.¹⁰⁾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받아들인 다른 학자들도 다른 여러 텍스트 단위의 연대를 규정하고자 했다.¹¹⁾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이들이 책들과 텍스트 단위들에 대해 내린 결론을 대개 받아들

8) A. Hurvitz, *A Linguis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ly Source and the Book of Ezekiel: A New Approach to an Old Problem*, CahRB 20 (Paris: J. Gabalda, 1982).

9) Hurvitz, *Linguistic Study*, 14-16.

10) Hurvitz, *The Transition Period in Biblical Hebrew: A Study in Post-Exilic Hebrew and Its Implication for the Dating of Psalms* (Jerusalem: Bialik, 1972; in Hebrew); idem, “The Date of the Prose-Tale of Job Linguistically Reconsidered,” *HTR* 67 (1974), 17-34; idem, “The Language of Qoheleth and Its Historical Setting within Biblical Hebrew,” *The Language of Qoheleth in Its Context: Essays in Honour of Prof. A. Schoors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eds. A. Berlejung and P. Hecke, OLA 164 (Leuven: Peeters, 2007). 좀 더 자세한 논의는 김동혁,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연구사,” 『구약논단』 21:1 (2015), 216-217을 참고하라.

11) 예컨대, R. L. Bergey, “*The Book of Esther: Its Place in the Linguistic Milieu of Post-Exilic Biblical Hebrew Prose: A Study in Late Biblical Hebrew*” (Ph.D. Dissertation; Dropsie College for Hebrew and Cognate Learning, 1983); R. M. Wright, *Linguistic Evidence for the Pre-Exilic Date of the Yahwistic Source*, LHBOTS 419 (London: T&T Clark, 2005)를 보라. 이들 저작물에 관한 평가와 논의는 김동혁, “언어학적 연대 결정 연구사,” 217-219를 참고하라.

인다. 그러나 제사장 자료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주석가들 다수는 후르비츠가 제사장 자료에 대해 내린 결론을 거부 혹은 외면한다. 그런데 이는 구약학에서 큰 문제가 된다. 제사장 자료는 구약학의 핵심 분야인 오경 형성사 논의의 주요 논제이기 때문이다.

후르비츠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제사장 자료의 연대가 강제 이주기 전이라는 것이다. 후르비츠는 제사장 자료의 언어와 에스겔서의 언어를 비교한다. 비교가 가능한 문법(즉 구문)과 어휘 항목 30건의 형태를 살펴보니, 제사장 자료의 구문 및 어휘가 언제나 에스겔서의 구문 및 어휘보다 유형적으로 앞선다는 것이다.¹²⁾ 따라서, 에스겔서가 강제 이주기에 쓰였다는 데에 동의하는 이라면, 제사장 자료가 강제 이주기 전에 완성되었다는 후르비츠의 결론도 받아들여야 한다.¹³⁾

후르비츠의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비교 가능한 모든 언어 요소를 비교했을 때 제사장 자료의 것이 에스겔서의 것보다 예외 없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면—후르비츠의 방법론 자체가 잘못되지 않은 한—제사장 자료는 강제 이주기 이전에 완성되었어야 한다. 실제로 몇몇 학자가 후르비츠의 결론을 반박하긴 했으나, 후르비츠는 그러한 반론을 언어학적으로 재반박했다. 예컨대, 가장 널리 제기되는 반론은, 후대의 서기관들이 초기(즉, 강제 이주 이전) 성서 히브리어를 잘 알고 구사했다는 것이다.¹⁴⁾ 교육과 훈련이 철저했으므로 강제 이주기나 그 이후의 서기관들이 초기 성서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¹⁵⁾ 이에 대해 후르비츠는 강제 이주기

12) 후르비츠의 30개의 항목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3) Hurvitz, *Linguistic Study*, 143-155, 특히 150-151, 154-155를 보라.

14) 간략히 말해, ‘초기 성서 히브리어’는 강제 이주 이전 히브리어를,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그 이후 히브리어를 뜻한다. 전자는 오경과 전기 예언서의 산문으로 대표되고 후자는 제2성전기에 쓰인 다윗 권(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으로 대표된다. 더 자세한 논의는 김동형,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쟁과 언어 변이성 개념에 근거한 그 이론적 평가,” 『Canon&Culture』 6:2 (2012), 137-142, 특히 138쪽의 각주를 보라.

15) 대표적으로 P. R. Davies, “Biblical Hebrew and the History of Ancient Judah: Typology, Chronology and Common Sense,”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ed. I. Young, JSOTS 369 (London: T&T Clark, 2003), 150-163을 보라.

이후의 저자들이 자기 시대의 언어적 배경을 완벽히 감출 수 있었으리라는 가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강제 이주 사건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언어를 단절했기에, 후대의 서기관들이 고전/표준 성서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¹⁶⁾ 즉, 실수가 안 보인다면 강제 이주기 이전 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후르비츠의 『제사장 자료와 에스겔서의 관계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의 결론은 적어도 언어학적으로는 강력하다. 그리고 필자가 알기로 이 단행본의 언어학적 논의들을 전면적으로 반박한 연구는 없다. 이 지점에서 본 논문의 필요성이 생겨난다. 본 논문은 제사장 자료에 관한 후르비츠의 언어 연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이 연구를 지금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가 또 있다. 그간 사회언어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후르비츠가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을 확립한 1960년대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필 단행본이 출간된 1982년에도, 사회언어학은 성서 히브리어학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¹⁷⁾ 1960년대에 태어난 사회언어학의 가장 큰 공헌은 언어 변화의 기제를 밝혀냈다는 점이다.¹⁸⁾ 따라서 언어 변화를 다룬

-
- 16) Hurvitz, "Can Biblical Texts Be Dated Linguistically? Chronological Perspectives in the Historical Study of Biblical Hebrew," *Congress Volume, Oslo 1998*, eds. A. Lemaire and M. Saebo, VTSup 80 (Leiden: Brill, 2000), 143-160(특히 154). 또한 헨델과 요스텐(R. Hendel and J. Joosten)의 말을 들어 보라. "To the historical linguist, they also demonstrate that archaizing composition was never perfect. Although postclassical authors tried to imitate the language they knew from old texts, they never fully succeeded." "They undermine the idea of 'perfect archaizing': however proficient later authors may have been in classical Hebrew, they inevitably tripped up in one way or another." Hendel and Joosten, *How Old Is the Hebrew Bible? A Linguistic, Textual, and Historical Study*, AYBR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8), 차례대로 85, 96-97.
- 17) 사회언어학이 성서 히브리어학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초기이다(아래를 보라). 그 이전에 성서 히브리어학에 사회언어학을 활용한 소수의 학자들의 연구에 관해서는 Dong-Hyuk Kim, *Early Biblical Hebrew, Late Biblical Hebrew, and Linguistic Variability: A Sociolinguistic Evaluation of the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VTSup 156 (Leiden: Brill, 2012), 45-50을 참고하라.
- 18) 사회언어학이 밝혀낸 언어 변화의 기제에 관한 간략한 설명으로 김동혁,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쟁," 151-152를 보라.

후르비츠의 단행본을 사회언어학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온당하다. 즉, 본 논문의 목적은 제사장 자료에 관한 후르비츠의 언어 연구를 **사회언어학** 방법론을 사용하여 **전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본론의 첫 부분은 후르비츠의 연대 결정 방법론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사회언어학의 주요 개념인 라보브(W. Labov)의 두 가지 언어 변화 유형을 소개한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후르비츠가 언어 변화로 이해한 언어 특징 30건을 소개하고, 각 항목에 관해 그것이 실제 언어 변화인지, 그 성격은 어떠한지를 논의한다. 이 논의를 통해 후르비츠의 방법론과 분석 결과가 그동안 생각되어 온 것보다 는 든든하지 못함을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뒤따른다.

2. 이론적 배경: 라보브의 두 가지 언어 변화 유형

이 절의 논의는 후르비츠의 연구를 평가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다. 첫 단락에서는 사회언어학의 개념들 중 라보브의 두 가지 언어 변화 유형 개념이 성서 히브리어학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다. 다음 단락은 라보브의 두 가지 언어 변화 유형을 설명한다. 마지막 단락은 이 개념을 성서 히브리어학에 처음 소개한 필자의 이전 논의를 요약하는데, 이 단락의 논의는 후르비츠의 연구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2.1. 언어학적 연대 결정과 사회언어학

2000년대 초반 후르비츠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에 관한 논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때 돌파구를 열어 준 것이 사회언어학이다. 2012년에 나온 밀러-나우데와 제비트(C. Miller-Naudé and Z. Zevit)가 편집한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성』, 같은 해에 나온 필자의 단행본 『초기

성서 히브리어, 후기 성서 히브리어, 언어 변이성』, 2014년에 레제트코와 영(R. Rezetko and I. Young)이 함께 써서 펴낸 『역사언어학과 성서 히브리어』는 사회언어학의 주요 개념을 적극 활용하였다.¹⁹⁾ 이 저작들이 소개했고 이후 중요하게 활용된 사회언어학 개념에는 언어 변이(language variation), 언어 변화의 기제 및 단계, S-곡선, 구어체 및 문어체 언어의 차이, 장르와 텍스트 유형 등이 있다.²⁰⁾ 반면 소개가 되었으나 많이 활용되지 못한 개념도 있다. 라보브의 두 가지 언어 변화 유형, 즉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이다. 필자가 단행본에서 초보적으로 다룬 이 개념은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²¹⁾

2.2. 라보브의 두 가지 언어 변화 유형²²⁾

사회언어학의 창시자 중 하나인 라보브는 기본적으로 언어 변화에 두 가지 상반되는 방향이 있다고 제안한다. 하나는 ‘(사회적 의식) 아래로부터의 변화’(change from below [social awareness])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19) C. Miller-Naudé and Z. Zevit, eds., *Diachrony in Biblical Hebrew*, LSAWS 8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2); Kim, *Early Biblical Hebrew*; R. Rezetko and I. Young, *Historical Linguistics and Biblical Hebrew: Steps Toward an Integrated Approach*, SBLANEM 9 (Atlanta: SBL Press, 2014). 후르비츠의 방법론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연구서는 김동혁, “언어학적 연대 결정 연구서”를 참고하라.

20) 사회언어학 일반이 성서 히브리어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개관하려면 B. J. Noonan, *Advances in the Study of Biblical Hebrew and Aramaic: New Insights for Reading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2020), 201-222를 보라. 최근에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성서 히브리어와 아람어 연구: 언어학으로 새롭게 읽는 구약성서』, 신철호 역 (서울: 감은사, 2022).

21) 슈니더윈드(W. M. Schniedewind)는 이 개념이 언어학적 연대 결정 논의와 관련하여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Schniedewind, “Linguistic Dating, Writing Systems, and the Pentateuchal Sources,”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Bridging the Academic Cultures of Europe, Israel, and North America*, eds. Jan C. Gertz et al., FAT 111 (Tübingen: Mohr Siebeck, 2016), 349.

22) 이 단락(\$2.2)의 논의는 Kim, *Early Biblical Hebrew*, 89-94를 요약한 것에 일부 새로운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의식) 위로부터의 변화’(change from above [social awareness])이다.²³⁾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체계적이고 의식하기 힘든 반면, 위로부터의 변화는 산발적이고 의식에서 일어나고 위엄(prestige)과 관련된다.²⁴⁾ 또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표준 형태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위로부터의 변화는 표준 형태 쪽으로 움직인다.²⁵⁾

우선,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처음엔 구어체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변화인데, 내부적, 언어적 요인이 작동한 것을 보여 준다. 초기에, 그리고 발전 과정의 대부분 기간에, 이 변화는 완전히 사회적 인식 수준 아래에 있다. 아무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 혼란된 관찰자들조차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변화가 거의 완성될 즈음에야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변화를 인식하게 된다. 사회의 어느 계층이라도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지만,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회 그룹이 변화를 시작한 사례는 기록된 바 없다.²⁶⁾

“내부적, 언어적 요인”은 “인간 발화와 지각의 한계와 자원”에 근거하며,

23) W. Labov, *Sociolinguistic Patterns*, Conduct and Communication 4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2), 178-180.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의 교과서적인 설명은 R. Wardhaugh and J. M. Fuller,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7th ed., Blackwell Textbooks in Linguistics 4 (Chichester: Wiley Blackwell, 2015), 214-216을 참고하라. 훗날 라보브는 두 표현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면 의미가 더 명확히 전달될 수 있었겠다고 말했다. 곧, ‘아래로부터의 변화’ 대신 ‘안으로부터의 변화’(change from within)로, ‘위로부터의 변화’ 대신 ‘밖으로부터의 변화’(change from above)로 부르는 것이 나왔겠다고 한 것이다. Labov,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03.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라는 표현이 의미가 그르지 않고, 또 라보브가 말하듯 기존 표현들이 사회언어학에서 이미 수십 년간 잘 사용되어 왔으므로 (Ibid.), 두 표현을 계속 쓰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24) Wardhaugh and Fuller,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214.

25) Wardhaugh and Fuller,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214.

26) Labov,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vol. 1, *Internal Factors*, Language in Society 20 (Oxford: Blackwell, 1994), 78.

“인간 언어 기관의 생리학에서 도출되는 변화의 물리적 설명” 및 “언어의 지각과 처리와 학습을 포함하는 인지적 설명”과 관련된다.²⁷⁾ 더하여 이 내부적, 언어적 요인으로 생기는 언어 변화는 “자연스럽고 규칙적”이다.²⁸⁾

반면, 위로부터의 변화는

지배적인 사회 계층이 시작하는데, 대개 대중이 온전히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이 변화는 지배적인 계층이 볼 때 더 위엄(prestige) 있다고 여기는 다른 언어 공동체에서 가져온 차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용은 지배적인 계층이나 다른 사회 계층의 구어체에 즉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주의해서 하는 말씨에 주로 나타난다. 이 변화는 구어를 다 습득한 후에 배우게 되는 부과된(superposed) 방언을 보여 준다.²⁹⁾

위로부터의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모든 면에서 반대이다. 이 변화는 외부적 요인으로 촉발된다. 즉, “다른 언어 공동체에서 가져온 차용”이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변화를 처음 수용하는 이들은 외부에서 가져온 새 형태를 만날 기회를 가진 이들이어야 한다.³⁰⁾ 이 때문에 위로부터의 변화의 초기 수용자와 산포자는 대개 지배적인 사회 계층이다.³¹⁾

27) Wardhaugh and Fuller,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214.

28) L. Campbell and M. J. Mixco, *A Glossary of Historical Linguis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7), s.v. “internal causal factors, internal factors.”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예로 한국어에서 ‘ㅁ’과 ‘ㅂ’가 병합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변화는 전설 모음(ɪ, ʌ, ʊ)의 체계를 보다 단순하게(즉, 셋에서 둘로) 만듦으로 인지적 부담을 줄이게 된다.

29) Labov,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1:78.

30) Labov,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vol. 2, *Social Factors*, Language in Society 29 (Oxford: Blackwell, 2001), 270-271.

31) 위로부터의 변화의 예로는 영어에서 다중 부정(multiple negation)이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영어에서 다중 부정(예컨대, “I don’t have nothing.”)은 16세기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되다가 지식층에서 다중 부정이 잘못된 문법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점차 회피하게 되었다. T. Nevalainen, “Social Mobility and the Decline of Multiple Negation in Early Modern English,” *Advances in English Historical Linguistics* (1996), eds. J. Fisiak and M. Krygier, Trends in Linguistics: Studies and

우리 논의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위로부터의 변화는 그 요인이 자연적이지 않기에 변화의 진행이 고르지 못하다. 새 형태가 매끄럽게 늘어나지 않고 옛 형태가 끈질기게 다시 나타난다. 언어 사용자는 부자연스러운 새 형태를 사용하다가도 자꾸 자연스러운 옛 형태로 돌아간다.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달리 위로부터의 변화는 불규칙적이고 비체계적이기 때문이다.³²⁾ 그러므로 위로부터의 변화는 언어 변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반면,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변화인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변화의 정도 혹은 연대를 잘 보여 주는 표지가 된다.

2.3. 선행 연구

라보브의 두 가지 언어 변화 유형 개념을 성서 히브리어학에 처음 소개하고 적용한 연구는 필자의 단행본이다.³³⁾ 이 연구는 사회언어학 방법론으로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평가하는데, 초기(즉, 강제 이주 이전)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즉, 강제 이주 이후) 성서 히브리어의 대조를 보여 준다고 생각되는 언어 특징의 대조 쌍 8건을 분석한다(<표 1>). 대조 쌍 각각은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다른 형태이므로 언어 변이이다.³⁴⁾ 언어 변이는 사회언어학의 핵심 연구 대상이기에 사회언어학은 대조 쌍들을 분석하기에 적절하다.³⁵⁾ 필자는 각 변이에 대해 다음 두 질문을 던졌다. (1) 이 변이는 실제 언어 변화의 단면인가? (2) 만약 이 변이가 실제 변화의 단면이라면 변화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³⁶⁾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각 변이는 시간 독립 변수와 비교된다. 어떤 변이의 사용 양상이 시간 독립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면

Monographs 112 (Berlin: M. de Gruyter, 1998), 263-291.

32) Labov,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1:453.

33) Kim, *Early Biblical Hebrew*.

34) Kim, *Early Biblical Hebrew*, 4-5.

35) Kim, *Early Biblical Hebrew*, 4-6.

36) Kim, *Early Biblical Hebrew*, 98-99.

그 변이는 진짜 언어 변화의 단면이다.³⁷⁾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각 변이는 텍스트 유형 독립 변수와 비교된다. 그리하여 어떤 변화가 구어체에 근거한 텍스트 유형에서 더 잘 나타나면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문어체에 근거한 텍스트 유형에서 더 잘 나타나면 위로부터의 변화로 규정된다.³⁸⁾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³⁹⁾

<표 1> 필자의 단행본이 다룬 언어 변화와 변화의 방향

	초기 성서 히브리어	후기 성서 히브리어	실제 변화?	변화의 방향
①	וְתָם-	וְתִיהֶם-	예	아래로부터
②	וְהָיָה/וְהָיָה + כֹּ/כַ + 부정사	וְ + כֹּ/כַ + 부정사	예	아래로부터
③	הַמֶּלֶךְ אָאָא	אָאָא הַמֶּלֶךְ	예	위로부터
④	בֵּין... וּבֵין...	בֵּין... לְבֵין...	예	?
⑤	בֵּית יְהוָה	בֵּית הָאֱלֹהִים	예	위로부터
⑥	מִמְלָכָה	מְלָכּוֹת	예	위로부터
⑦	עָרָה	קָהָל	아니요	해당 없음
⑧	צֶעֶק	זֶעֶק	예	아래로부터

단행본의 분석에 따르면 성서 히브리어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되어 온 8쌍의 변이 중 7쌍이 실제 변화의 단면이다. 반면 ⑦ קָהָל/עָרָה 쌍의 경우는 변화의 사례가 아니다.⁴⁰⁾ 또한 실제 변화로 규정된 7쌍 중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총 6쌍인데(④는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이 중 3쌍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이고(①, ②, ⑧), 3쌍은 위로부터의 변화이다(③, ⑤,

37) Kim, *Early Biblical Hebrew*, 99. 유의할 점은 모든 변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변이는 다양한 요인으로 생겨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동혁,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 변이,” 『구약논단』 28:1 (2022), 8-33을 보라.

38) Kim, *Early Biblical Hebrew*, 99.

39) Kim, *Early Biblical Hebrew*, 150.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책의 5장(97-150 쪽)을 참고하라.

40) 필자는 이 사례를 개인 방언으로 보았다. 자세한 논의는 Kim, *Early Biblical Hebrew*, 140-144를 참고하라.

⑥). 그런데 변화의 방향을 규정할 수 있는 사례의 절반이 위로부터의 변화로 분석된 것은 예상 밖이다.⁴¹⁾ 언어 변화는 대개 구어에서 시작되고, 따라서 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이기 때문이다.⁴²⁾ 구어에서는 여러 언어 혁신이 실험되고, 이들 중 ان중의 지지를 받는 것이 언어 변화가 된다. 그런데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특이하게도 위로부터의 변화를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분석이 옳다면, 초기 성서 히브리어에서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전형적이지 않다. 위로부터의 변화는 자연적인 언어 변화가 아니기에, 그 진행이 고르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개별 언어 특징들의 목록을 가지고서 성서 텍스트의 연대를 결정하는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회의적으로 보았다.⁴³⁾ 단행본이 내린 이런 결론은 대조 쌍 8개만 분석한 결과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이 잠정적 결론이 제사장 자료에 관한 후르비츠의 종합적인 논의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보고자 한다.

3. 자료의 분석

이 절에서는 후르비츠가 『제사장 자료와 에스겔서의 관계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에서 실제로 제시한 분석 결과를 평가하겠다. 이 책이 다룬 언어 항목은 30건인데, 후르비츠에 따르면 30건 모두 실제 언어 변화이고 각 항목은 예외 없이 제사장 자료의 형태가 에스겔서의 형태보다 유형론적으로 앞선다. 과연 그러한지를 여기서 따질 것이다. 첫 단락은 후르비츠가 다룬 언어 항목 30건을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 나열하고, 둘째 단락은 각 항목의

41) Kim, *Early Biblical Hebrew*, 157.

42) Kim, *Early Biblical Hebrew*, 157. 라보브는 평생의 연구를 정리하여 세 권짜리 책으로 펴냈는데, 거기서 그가 논의한 언어 변화 중 위로부터의 변화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예컨대, Labov,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1:97, 321, 453을 보라.

43) 필자의 주장은 Kim, *Early Biblical Hebrew*, 151-161에 요약되어 있다.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규정할지 그 방법을 논의하고, 셋째와 넷째 단락은 후르비츠의 항목 30건의 변화의 방향을 규정한다.

3.1. 후르비츠의 언어 항목

아래는 후르비츠가 다룬 언어 항목 30건이다. 후르비츠는 이 항목들을 문법과 어휘로 크게 구분하고 어휘를 다시 주제별로 구분했다. 화살표 다음에 나오는 설명은 후르비츠의 논의를 필자의 말로 정리한 것이다. 괄호 안에 후르비츠 책의 쪽수를 넣었다.

문법

- ① מְשֻׁבָּתִים > מְשֻׁבָּתִיהֶם ⇒ 여성 복수 어미 תי-에 붙는 남성 복수 인칭 접미사 ׀-יָהֶם으로 변함(24-27)
- ② מְרַבֵּעַ > מְרַבֵּעָה ⇒ 형용사 틀의 변화. 피엘과 푸알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현상의 일환(27-30)
- ③ אֲמָתִים > אֲמָתֹת ⇒ 쌍수형 대신 수사와 복수형의 결합이 쓰임(30-32)
- ④ קָם > קָם ⇒ ‘성취하다, 실행하다’의 뜻이 히펠로 표현되던 것이 피엘로 표현됨(32-35)
- ⑤ מְרַבֵּעַ > מְרַבֵּעָה ⇒ 형용사 틀의 변화. 피엘과 푸알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현상의 일환(35-39, ② 참조)
- ⑥ הַתְּקַדֵּשׁ > הַתְּקַדֵּשׁ ⇒ ‘하나님’이 주체일 때 니팔형만 쓰이던 것이 히트파엘형도 쓰임(39-43)
- ⑦ גִּלּוֹת > גִּלּוֹת ⇒ 단수형으로 쓰이던 집합 명사가 복수형으로도 쓰임(43-46)
- ⑧ הָיָה > הָיָה ⇒ 불규칙이던 동사 형태가 III-ה 동사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게 됨(46-48)
- ⑨ הִלָּךְ > הִלָּךְ ⇒ 피엘과 푸알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현상의 일환(48-52, ②, ⑤ 참조)

어휘

제사와 관련된 어휘

- ⑩ רִיחַ נִחוּיָהּ > ∅ ⇒ 신인동형적인 표현을 피하게 됨(53-58)

⑪ אֶשֶׁה > ∅ ⇒ ‘불로써 바치는 제물’을 뜻하는 표현이 사라짐(59-63)

⑫ הִדִּיחַ > רָחֵץ ⇒ ‘[제물을] 씻다’를 뜻하는 표현이 바뀜(63-65)

가족 및 사회 조직과 관련된 어휘

⑬ קָהָל > עֵדָה ⇒ ‘총회’를 뜻하는 표현이 바뀜(65-67)

⑭ עֵם의 의미 변화 ⇒ ‘친족’이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게 됨(67-71)

⑮ שָׂאָר > ∅ ⇒ ‘혈육’을 뜻하는 표현이 사라짐(71-74)

⑯ עֲמִית > ∅ ⇒ ‘동료, 친구’를 뜻하는 단어들(רֵעַ, אָח, חֵבֶר, חֵבֶר) 중 이 단어가 사라짐(74-78)

성전 구조를 묘사하는 전문 용어

⑰ עֲזָרָה > חֶצֶר ⇒ 성전의 ‘뜰’을 뜻하는 표현이 바뀜(78-81)

⑱ צֹנֶה > ∅ ⇒ ‘형태, 양식’을 뜻하는 새로운 표현이 나타남(82-84)

⑲ סָבִיב > סָבִיב > סָבִיב ⇒ ‘~ 둘레에, 사방에’를 뜻하는 전치사의 형태가 바뀜(84-87)

⑳ מִזָּנָה(א) ... מִזָּנָה > מִפָּנָה(א) ... מִפָּנָה ⇒ ‘이쪽에... 저쪽에’를 뜻하는 표현이 바뀜(87-91)

㉑ מִמָּהֲלָךְ > דֶּרֶךְ ⇒ ‘이동한 거리’라는 의미를 דֶּרֶךְ이 표현했으나 후에는 מִמָּהֲלָךְ이 표현함(91-94)

언약 및 맹세와 관련된 용어

㉒ בְּרִית + קוֹם > עֲמַדָּה + בְּרִית ⇒ ‘언약이 맺어지다’라는 의미로 초기에는 전자만 쓰였으나 후에는 후자도 쓰임(94-97)

㉓ לְדֹרֹתֵינוּ/לְדֹרֹתֵם/לְדֹרֹתֵיכֶם > ∅ ⇒ ‘대대로’를 뜻하는 이 표현이 쓰이지 않게 됨(98-101)

완곡어법

㉔ הִתְהַלֵּךְ > ∅ ⇒ 신인동형적인 이 표현이 쓰이지 않게 됨(101-103)

㉕ גַּעַל > ∅ ⇒ ‘증오하다’를 뜻하는 동사에 ‘하나님’이 주어로도 목적어로도 쓰이지 않게 됨(103-107)

전치사

㉖ מִמָּהֲלָךְ > מִמָּהֲלָךְ > ∅ ⇒ ‘~부터 그 위로’를 뜻하는 표현이 바뀌어 전치사 מִ가 삽입됨(107-109)

㉗ $\sqrt{\text{שכנ}} + \dots > \sqrt{\text{שכנ}} + \dots \text{על} \Rightarrow$ 하나님의 ‘머무름’을 뜻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들과 결합되는 전치사가 바뀜(109-113)

㉘ $\dots \text{בין} \dots \text{ל} > \dots \text{בין} \dots \text{ל} \Rightarrow$ ‘~와 ~ 사이에’를 뜻하는 전치사가 바뀜(113-115)

기타

㉙ $\emptyset > \text{קעם} \Rightarrow$ ‘분노하다’를 뜻할 때 이 어근의 칼 형태가 초기에는 안 쓰였으나 후기에는 쓰이게 됨(115-116)

㉚ $\text{שכר} > \emptyset \Rightarrow$ ‘שכר’ 표현에 쓰이던 שכר이 후기에 사라짐(116-119)

3.2. 분석 방법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앞에서 보았듯(§2.3) 필자는 단행본에서 각 변화의 성격을 규정할 때 경험적 방법을 사용했다. 경험적 방법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단행본이 다룬 8개의 항목이 성경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변이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변이의 사용 양상에 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3.1의 목록 중 ①, ⑬, ㉘가 그 8개 항목에 포함된다(차례대로, §2.3의 ①, ⑦, ④). 그러나 이 셋 말고 다른 항목들은 자주 사용되지 않으므로 유의미한 통계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목록의 대부분의 항목은 경험적 방법으로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라보브가 이론화한 두 유형의 변화의 특징들에 근거하여 후르비츠가 주장한 변화의 사례들이 아래로부터의 변화인지 위로부터의 변화인지를 따지려는 것이다. 변화의 두 유형은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래서 **변화의 요인** 및 **초기 산포자**에 관해 생각해 본다면,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변화의 요인의 경우, 내부적 혹은 언어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판단되면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규정할 수 있다. 내부적, 언어적 요인은, 앞에서 언급했듯, “인간 발화와 지각의 한계와 자원”에 근거하며 “인간 언어 기관의 생리학에서 도출되는 변화의 물리적 설명” 및 “언어의 지각과 처리와 학습을

포함하는 인지적 설명”과 관련된다.⁴⁴⁾ 반대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촉발됐다고 판단되면 위로부터의 변화로 규정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차용일 것이다. 이를테면 아람어에서 가져온 차용어와 관련된 변화라면 위로부터의 변화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변화의 초기 수용자와 산포자에 관해 생각해 보자면,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이 사회의 지배적인 계층이라면 위로부터의 변화로 규정해야 한다. 역시 차용이 대표적이다. 차용을 초기에 접하고 산포하는 계층은 외부에서 온 새 형태에 접근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이다.⁴⁵⁾

변화의 두 유형을 규정할 때 경험적, 통계적 방법을 쓰지 못하는 점은 이롭다. 연역적 추론은 필연적으로 해석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다루는 언어 항목은 서른 개나 되므로, 만약 분석의 결과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킨다면, 유의미한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 서는 후르비츠의 30개 항목을 문법과 어휘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3.3. 분석(1): 문법

<표 2>는 후르비츠의 문법 항목 9개의 변화의 방향을 필자가 규정한 것이다. 이들 중 ① מִשְׁבִּיחַ > מִשְׁבִּיחָה는 필자가 단행본에서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규정한 바 있다.⁴⁶⁾ 나머지 항목들은 변화의 방향을 연역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변화의 요인과 변화의 적극적 참여자에 근거하여 필자는 대부분의 변화를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판단한다.

44) Wardhaugh and Fuller,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214.

45) Labov,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2:270-271.

46) 단행본의 논의에 따르면, 여성 복수 어미(נִי-)와 함께 쓰이는 남성 복수 인칭 접미사의 두 변이형(נִי-과 נִי-)의 사용 양상은 텍스트의 유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변화의 양상이 구어에 근거한 텍스트 유형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이로써 이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규정되었다. Kim, *Early Biblical Hebrew*, 99-107을 참조하라.

<표 2> 후르비츠의 변화 목록 중 문법 항목의 변화의 방향

	변화	변화의 방향
①	מוֹשְׁבוֹתָם > מוֹשְׁבוֹתֵיהֶם	아래로부터
②	רְבוּעַ > מְרֻבָּעַ	아래로부터
③	אֲמָתִים > שְׁתֵּים אֲמוֹת	아래로부터
④	הָקִים > קִים	?
⑤	קָרוֹשׁ > מְקֻדָּשׁ	아래로부터
⑥	נִקְדָּשׁ > הִתְקַדָּשׁ	?
⑦	נָזַל, נִזְלָה > נִזְלוּת	아래로부터(?)
⑧	חִי > חִיָּה	아래로부터
⑨	הִלָּךְ > הִלָּךְ	아래로부터

③ אֲמָתִים > שְׁתֵּים אֲמוֹת과 ⑧ חִי > חִיָּה는 변화의 요인을 고려할 때 아래로부터의 변화임이 거의 확실하다. 둘 모두 인지와 관련된다. ③의 경우 성서 히브리어에서 이미 잘 쓰이지 않게 된 쌍수형(אֲמָתִים)을 쓰는 것보다 그냥 복수형(שְׁתֵּים אֲמוֹת)을 쓰는 것이 인지적으로 더 편하다. 변화가 완성되면 אֲמָה의 쌍수형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⑧은 유비에 의한 변화인데, 이 역시 기억해야 할 형태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어근글자를 둘만 쓰는 유별난 형태인 חִי를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흔한 III-ה 동사 형태(예컨대, חִיָּה)를 쓰면 되기 때문이다.

② רְבוּעַ > מְרֻבָּעַ, ⑤ קָרוֹשׁ > מְקֻדָּשׁ, ⑨ הִלָּךְ > הִלָּךְ도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후르비츠에 따르면 이들 세 변화는 보다 일반적인 변화의 일환이다. 초기 성서 히브리어가 후기 성서 히브리어 및 성서 이후 히브리어로 넘어가면서 동사 체계에서 칼형보다 피엘형을 선호하는 일반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⁴⁷⁾ ②와 ⑤는 이 흐름 중 형용사의 예이고 ⑨는 동사의 예이다. 어떤 언어 변화가 고립된 변화가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변화의 일환이라면, 언어 내적 요인으로 촉발된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들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보아야 한다.

47) Hurvitz, *Linguistic Study*, 28-29, 39, 51을 보라.

지금까지 논의한 사례들(①, ②, ③, ⑤, ⑧, ⑨)은 꽤 분명하게 아래로부터의 변화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례들이다. 나머지 사례들(④, ⑥, ⑦)은 위 예들만큼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⑦ $\text{נִלְחָם} > \text{נִלְחָה}$ 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된다. 후르비츠에 따르면 후기로 갈수록 단수형보다 복수형을 많이 쓰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이다.⁴⁸⁾ 만약 이것이 당대 언어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이 있었다면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증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④ $\text{הָיָה} > \text{הָיָה}$ 과 ⑥ $\text{אֱלֹהִים} > \text{אֱלֹהִים}$ 은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④의 경우 현존하는 증거만으로는 변화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변화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다. ⑥과 관련하여 후르비츠는 이 변화가 갈수록 니팔이 히트파엘로 쓰이게 된 일반적인 변화의 일환이라고 말한다.⁴⁹⁾ 이 점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다. 후르비츠는 $\text{אֱלֹהִים} > \text{אֱלֹהִים}$ 가 ‘하나님’이 주어일 때와 관련된 변화라고 말한다(위 §3.1의 목록을 보라).⁵⁰⁾ ‘하나님 + אֱלֹהִים ’ 혹은 ‘하나님 + אֱלֹהִים ’, 즉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시다’라는 표현은 제사장 혹은 종교 엘리트 계층의 특징적인 사용영역어(register)였을 것이다.⁵¹⁾ 그렇다면 이 변화는 사회의 상층부와 밀접하게 관계될 것이고, 이는 위로부터의 변화의 주요한 특징이다. 요컨대, ⑥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의 핵심 특징을 모두 보여 주므로,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기는 힘들다.

이 단락의 논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후르비츠가 정리한 문법(혹은 구문)

48) Hurvitz, *Linguistic Study*, 43-45.

49) Hurvitz, *Linguistic Study*, 42.

50) Hurvitz, *Linguistic Study*, 41.

51) ‘사용영역어’는 ‘상황 변이어’로도 번역된다. 이들 용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소통의 주제, 영역,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따른 언어 변이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김용진, “상황 변이어(Register),” 한국사회언어학회 편, 『사회언어학 사전』 (서울: 소통, 2012), 114.

의 변화 9개 항목 중 변화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항목은 7개이고 이들은 모두 아래로부터의 변화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법 영역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문법(혹은 구문)의 변화는 대개 아래로부터의 변화이다.**⁵²⁾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성질을 기억해 볼 때(§2.2), 문법의 변화는 언어의 연대를 충실하게 보여 주는 표지가 된다.

3.4. 분석(2): 어휘

<표 3>은 후르비츠의 어휘 목록의 변화의 방향을 필자가 규정한 것이다. 변화로 보기 힘든 ⑬을 제외하면, 8개 항목은 변화의 방향을 규정할 수 있었으나 12개 항목은 그러지 못하였다. 과반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어휘 항목의 경우 정보가 불충분한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선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칸을 비워 두고 후속 연구를 기약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변화의 요인과 적극적 수용자를 고려하여 필자가 규정한 변화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표 3> 후르비츠의 변화 목록 중 어휘 항목의 변화의 방향

범주		변화	변화의 방향
제사	⑩	רִיחַ > נִיחֹחַ	위로부터
	⑪	אָפּה > אָפּה	?
	⑫	רִחֵץ > רִחֵץ	위로부터

52) 슈니더윈드 또한 “구문의 변화는 언제나 [아래로부터의 변화] 범주에 속하고, 어휘의 변화도 대부분 같은 범주에 속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Schniedewind, “Linguistic Dating,” 349). 다만 그는 이렇게 진술하기만 하고 이를 논증하지는 않는다. 구문의 변화가 언제나 아래로부터의 변화라는 그의 진술은 필자의 분석과 일치한다. 그러나 어휘의 변화에 관한 그의 진술은, 적어도 후르비츠의 제사장 자료/에스겔서의 변화 목록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아래 논의를 보라.

범주		변화	변화의 방향
가족, 사회 조직	⑬	קָהָל > עֵדָה	변화 아님
	⑭	עָם의 의미 변화	?
	⑮	שָׂאָר > ∅	?
	⑯	עֲמִית > ∅	?
성전 구조	⑰	חָצֵר > עֲזָרָה	위로부터
	⑱	∅ > צִוְרָה	위로부터
	⑲	סָבִיב > סָבִיב סָבִיב	위로부터(?)
	⑳	מִזְבֵּחַ ... מִזְבֵּחַ (ו) > מִזְבֵּחַ ... מִזְבֵּחַ (ו)	위로부터(?)
	㉑	דָּרֶךְ > מִזְבֵּחַ	?
언약, 맹세	㉒	בְּרִית + קִיּוֹם > בְּרִית + עֲמֻדָּה	?
	㉓	וְיָ/וְ-לְדֹרֹתֵיכֶם > ∅	?
완곡어법	㉔	הַתְהַלָּךְ + 하나님 > ∅	위로부터
	㉕	נָעַל + √ > ∅	위로부터
전치사	㉖	מ... וּמֵעַלָּה > מ... וּלְמַעְלָה	?
	㉗	בְּ... + שָׁכָן > עַל... + שָׁכָן	?
	㉘	בֵּין... וּבֵין... > בֵּין... לְבֵין...	?
기타	㉙	∅ > קָעַס	?
	㉚	שָׁכָר > ∅	?

제사 관련 어휘의 변화들(⑩-⑫) 중 ⑩, ⑫는 위로부터의 변화로 규정할 수 있고 ⑪은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 ⑩ ‘향기로운 냄새’(רִיחַ נִיחֹחַ)라는 표현이 후기에 거의 사라지게 된 요인은 후르비츠가 지적하듯 신인동형적인 표현을 꺼리는 신학적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⁵³⁾ 이 변화를 이끈 사람들은 종교 지도층일 테니, 위로부터의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⑫ ‘제물을 씻다’를 뜻하는 동사가 רָחַץ에서 רָחַץ로 바뀐 것도 위로부터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표현은 제사라는 맥락에서 제사장들이 쓰던 전문적인 표현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⁵⁴⁾ 반면, ⑪ ‘불로써 바치는 제물’을 뜻하는 אֵשׁ가

53) Hurvitz, *Linguistic Study*, 56-57.

54) Hurvitz, *Linguistic Study*, 65.

사라지게 변화는 그 방향을 결정하기가 힘들다. 비록 그 쓰인 맥락이 제사였다 해도, 변화의 요인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변화의 요인이 제사장들의 의도적인 노력이었다면 위로부터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어 자체가 어떤 언어 내적 이유로 히브리어 어휘에서 사라진 것이라면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후르비츠의 어휘 목록 중 두 번째 그룹인 가족 및 사회 조직과 관련된 어휘들(⑬-⑯) 중 첫 번째 것은 실제 변화가 아니고 나머지 셋은 방향을 규정하기 힘들다. 우선, ⑬ ‘총회, 회중’을 뜻하는 קהל⁵⁵과 קהל⁵⁶ 변이는 필자가 단행본에서 실제 언어 변화가 아님을 논증한 바 있다. קהל⁵⁷의 사용 양상은 텍스트들의 연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지 않는다. 필자는 변이의 사용과 텍스트의 연대 간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연대가 합의된 텍스트만을 포함했는데, קהל⁵⁸은 성서 히브리어의 모든 연대의 텍스트 단위에 두루 쓰인 데 반해 קהל⁵⁹은 전기 예언서와 제사장 자료 단위에서만 쓰였다. 두 변이형과 시간 사이에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기에 이 변이는 시간에 따른 변이(즉, 변화)가 아니라고 필자는 주장했다.⁵⁵⁾ ⑭ עמ⁶⁰이 후대에 ‘친족’을 뜻하지 못하게 된 것, ⑮ ‘혈육’을 뜻하는 שׂרץ⁶¹이 사라진 것, ⑯ ‘동료, 친구’를 뜻하는 여러 단어 중 עמית⁶²가 사라진 것은 변화의 양상이 비슷하다. 셋 모두 어떤 단어 혹은 의미가 사라진 현상이다. 그러나 이 셋의 변화의 방향을 알기는 힘들다. 만약 이들이 언어 내적인, 자연스러운 요인에 의한 변화였다면 아래로부터의 변화이겠으나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다면 위로부터의 변화일 것이다. 그러나 그 요인이 외부적인지 언어 내적인지, 변화의 초기 수용자가 누구였는지 일러 주는 자료가 없으므로, 변화의 방향은 비위두는 것이 온당하다.

⑰-⑳은 성전 구조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이들 중 ㉑을 제외하면 모두 위로부터의 변화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⑰ ‘성전뜰’을 뜻하는 עֲזָרָה⁶³와 ⑱ 성전의 ‘형대, 양식’을 뜻하는 צִנְיָה⁶⁴와 관련된 변화는

55) Kim, *Early Biblical Hebrew*, 143-144를 참고하라.

사회 계층의 위쪽에서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퍼져 나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단어들은 주로 성전과 관련해서만 쓰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①9 성전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 **קָבִיב קָבִיב**는 후르비츠에 따르면 후대에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역대하에 한 번 나오는 것을 빼면 에스겔서에만 나온다.⁵⁶⁾ 그렇다면 **קָבִיב קָבִיב**가 에스겔(서)의 개인 방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후르비츠를 따라 ①9를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서 실제 일어난 변화로 받아들인다면 이 변화는 위로부터의 변화일 것이다. 이 표현 역시 성전을 묘사할 때만 사용되므로 적어도 초기에는 특정 계층(종교 엘리트)에만 국한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קָבִיב קָבִיב**는 변화가 아니거나 위로부터의 변화이다. ②0 **נִפְחָה**(ח) ... **נִפְחָה**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이 표현도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묘사할 때만 나온다.⁵⁷⁾ 따라서 변화가 아니거나, 위로부터의 변화였을 것이다. ②1 **יָרָךְ**이 표현하던 의미를 **יָמַחֵלֵךְ**이 표현하게 된 것은 방향을 규정하기 힘들다. **יָמַחֵלֵךְ**이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을 묘사할 때 사용되지만(42:4),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전과 상관없이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느 2:6; 욥 3:3, 4; 숙 3:7). 변화의 요인을 일러 주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방향을 알기는 어렵다.

언약 및 맹세와 관련된 두 표현(②2, ②3)은 변화의 방향을 규정하기 힘들다. ②2는 ‘언약이 맺어지다’라고 말할 때 **קָיָם** 동사를 사용하던 것이 **עָמַד** 동사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후르비츠는 이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설명한다. 이 변화는 동사 **עָמַד**의 의미 확장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즉, 초기 성서 히브리어에서 **עָמַד**와 **קָיָם**은 본디 각각 상태(‘서 있다’)와 동작(‘일어서다’)만을 의미했으나, 후기 성서 히브리어로 오면서 **עָמַד**가 두 가지 뉘앙스를 다 아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언약이 맺어지다’(= ‘언약이 세워지다’)라는 의미를 $\sqrt{\text{עָמַד}} + \text{בְּרִית}$ 가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⁵⁸⁾ 후르비츠의 설명을

56) 대하 4:3; 겔 8:10; 37:2; 40:5, 14, 40:16(2회), 17, 25, 29, 30, 33, 36, 43; 41:5, 6, 7, 8, 10, 11, 12, 16, 17, 19; 42:15, 20; 43:12.

57) 겔 40:10, 12, 21, 26, 34, 37, 39, 41, 48, 49; 41:1, 2, 15, 19, 26.

58) Hurvitz, *Linguistic Study*, 94-95.

받아들인다면 이 변화가 언어 내적인 자연적 변화인지 외적 요인에서 기인한 변화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방향을 규정하기는 힘들다. ㉓ $\text{לְרַחֵם} / \text{לְרַחֵם} / \text{לְרַחֵם}$ 가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서 사라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변화가 언어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변화의 방향을 규정하기는 힘들다.

그 다음 그룹(㉔, ㉕)의 변화의 방향은 위로부터임이 거의 확실하다. 둘 모두 신학의 발전과 관련된다. ㉔ ‘하나님’이 주어일 때 וַיִּהְיֶה 을 안 쓰게 된 것은 וַיִּהְיֶה 사례(㉑)와 비슷하다. 즉, ‘하나님’이 걸으신다는 신인동형적인 표현을 회피하는 쪽으로 언어가 변화한 것이다. ㉕는 נֶעַל (‘증오하다’)이라는 지나치게 강한 표현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지 않는 쪽으로 언어가 변한 것이다. 둘 모두 신학과 관련되므로 위로부터의 변화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치사와 관련된 세 변화(㉖-㉘)는 방향을 규정하기 힘들다. ㉖ ‘-와 ~ 사이에’를 뜻하는 전치사가 $\text{בֵּין} \dots \text{בֵּין}$ 에서 $\text{לְבֵּין} \dots \text{לְבֵּין}$ 로 바뀐 것은 필자가 단행본에서 다룬 바 있다. 거기서 이 변화는 증거 부족으로 그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⁵⁹⁾ 마찬가지로 ㉖ ‘-부터 그 위로’를 뜻하는 וּמִעַלָּה 가 후에 ל 를 포함하게 된 것과 ㉗ 동사와 결합하는 전치사가 ב 에서 על 로 바뀐 것도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 방향을 규정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후르비츠가 따로 범주화하지 못한 두 가지 변화가 있다. ㉙는 초기에 안 쓰이던 עַם 의 칼 형태가 후기에 쓰이게 된 것이고, ㉚은 ‘ וְשָׂכָר ’ 표현에 쓰이던 וְשָׂכָר 이 후기에 사라진 것이다. 관련 정보가 부족하므로 두 어휘의 변화 모두 방향을 규정하기가 힘들다.

이 단락의 논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후르비츠가 변화로 규정한 어휘 항목은 모두 21개이다. 필자는 이 중 1개 항목(㉓)은 변화가 아니라고 보았고, 8개 항목은 위로부터의 변화로 규정하였고, 나머지 12개 항목은 변화의

59) Kim, *Early Biblical Hebrew*, 128.

방향을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 과반이기에 마치 조각을 많이 잃어버린 퍼즐 맞추기 같긴 하지만, 그래도 퍼즐의 밑그림이 본래 어땠는지 약간은 알 수 있을 듯하다. 변화의 방향을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변화는 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휘의 변화와 관련하여 조심스럽지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의 변화는 위로부터의 변화가 많았던 듯하다.** 그렇다면 어휘의 변화는 언어의 연대를 충실하게 보여 주는 표지가 되지 못한다.

4. 나가며

본 논문의 목적은 오경 연구의 주요 논제인 제사장 자료의 연대 문제에 관한 후르비츠의 주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후르비츠는 1982년 단행본에서 제사장 자료의 언어와 에스겔서의 언어를 비교하여 30건의 언어 대조가 언어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각 항목은 예외 없이 제사장 자료의 형태가 초기의 형태임을 주장했다. 후르비츠의 단행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언어학적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논문은 최근에 발전한 사회언어학 방법론 특히 라보브의 두 가지 언어 변화 유형—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개념을 사용하여 그의 논증을 평가했다. 변화의 두 유형의 성격에 근거하여 30개 항목의 변화의 방향을 규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문법 요소 9개 항목 중 7개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였고 2개는 방향을 결정할 수 없었다. 어휘 요소 21개 중 1개는 실제 변화가 아니었고 8개는 위로부터의 변화였고 12개 항목은 방향을 결정할 수 없었다. 요컨대, 변화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문법의 변화는 모두 아래로부터의 변화였고 어휘의 변화는 모두 위로부터의 변화였다. 그렇다면 문법은 언어의 연대 혹은 변화의 정도를 잘 보여 주지만, 어휘는 그것을 충실하게 보여 주지 못한다. 이것은 문법이 어휘보다 언어의 변화를 더 충실히 보여 준다는 선배 학자들의 추측을 사회언

어학의 개념이 증명해 준 것이다.⁶⁰⁾

앞에서 필자는 본 논의가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아쉬워했다. 그렇더라도, “분석의 결과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킨다면, 유의미한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3.2). 그런데 본 연구의 각 논의가 한 쪽을 일관되게 가리키지 않는다. 문법의 변화와 어휘의 변화가 서로 반대쪽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필자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후르비츠의 논증은 후르비츠가 주장하는 것만큼 탄탄하지 못하다**. 후르비츠가 제사장 자료의 연대를 논의할 때 어휘 증거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⁶¹⁾ 그의 주된 근거인 어휘 자료의 다수가 위로부터의 변화라면, 언어학적 연대 결정이 후르비츠의 주장만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지는 않은 것이다.⁶²⁾ 그렇다면 제사장 자료가 후대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오경 연구자들에게 후르비츠의 이론은 극복 불가능하지 않다. 실로 텍스트의 연대를 결정할 때에 언어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질문이 있다. 에스겔서의 저자가 후기 성서 히브리어를 동시대 다른 저자들보다 더 일찍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⁶³⁾ 만약 에스겔이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진보적 수용자/사용자였다면 후르비츠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 가능성은 후르비츠가 그의 단행본을 펴냈을 당시에는 고려되지 못했으나, 오늘날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회언어학의 발전을 통하여 언어 변화 및 그 수용이 단순하지도 단선적이지도 정연하지도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혀 새로운 주제이다. 지금은 본 논문이 사회언어학이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기를 희망할 뿐이다.

60) 예컨대, R. Polzin, *Late Biblical Hebrew: Toward an Historical Typology of Biblical Hebrew Prose*, HSM 12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6), 15-16.

61) 이 점은 다른 텍스트 단위들에 대한 후르비츠의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62) 예컨대, Hurvitz, *Linguistic Study*, 14-16을 참고하라.

63) 이와 연결되는 질문으로 제사장 자료가 보수적 언어 사용자였을 가능성도 있다. Kim, *Early Biblical Hebrew*, 88-89를 보라.

<주요어>

아래로부터의 변화, 위로부터의 변화, 라보브,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사회언어학, 에스겔의 언어

<Keywords>

change from below, change from above, William Labov,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sociolinguistics, language of Ezekiel

* 접수일 2023년 8월 11일, 수정일 2023년 8월 29일, 게재 확정일 2023년 9월 4일

참고문헌

- 김동혁,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연구사,” 『구약논단』 21:1 (2015), 213-243.
- _____,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쟁과 언어 변이성 개념에 근거한 그 이론적 평가,” 『Canon&Culture』 6:2 (2012), 137-164.
- _____,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 변이,” 『구약논단』 28:1 (2022), 8-33.
- 전재영, “민수기에 제사장 문서(P)가 존재하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1 (2019), 5-38.
- 한국사회언어학회 편, 『사회언어학 사전』, 서울: 소통, 2012.
- 홍국평, “소위 신자료비평에 대한 비판적 소고,” 『장신논단』 44:2 (2012), 151-172.
- Baden, Joel S., *J, E, and the Redaction of the Pentateuch*, FAT 68, Tübingen: Mohr Siebeck, 2009.
- _____,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Renewing the Documentary Hypothesis*, AYBR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 Bergey, Ronald L., “*The Book of Esther: Its Place in the Linguistic Milieu of Post-Exilic Biblical Hebrew Prose: A Study in Late Biblical Hebrew*,” Ph.D. Dissertation, Dropsie College for Hebrew and Cognate Learning, 1983.
- Brown, Francis,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oston: Houghton, 1906.
- Campbell, Lyle and Mauricio J. Mixco, *A Glossary of Historical Linguis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7.
- Collins, John J., *Introduction to the Hebrew Bible*, 3rd ed., Minneapolis: Fortress, 2018.
- Davies, Philip R., “Biblical Hebrew and the History of Ancient Judah: Typology, Chronology and Common Sense,”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ed. Ian Young, JSOTS 369, London: T&T Clark, 2003, 150-163.

- Dozeman, Thomas B. and Konrad Schmid, eds.,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SymS 315, Atlanta: SBL Press, 2006.
- Gertz, Jan Christian, Konrad Schmid, and Markus Witte, eds., *Abschied vom Jahwisten: Die Komposition des Hexateuch in der jüngsten Diskussion*, BZAW 315, Berlin: de Gruyter, 2002.
- Hendel, Ronald and Jan Joosten, *How Old Is the Hebrew Bible? A Linguistic, Textual, and Historical Study*, AYBR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8.
- Hurvitz, Avi, "Can Biblical Texts Be Dated Linguistically? Chronological Perspectives in the Historical Study of Biblical Hebrew," *Congress Volume, Oslo 1998*, eds. Andre Lemaire and Magne Saebo, VTSup 80, Leiden: Brill, 2000, 143-160.
- _____, "The Date of the Prose-Tale of Job Linguistically Reconsidered," *HTR* 67 (1974), 17-34.
- _____, "The Language of Qoheleth and Its Historical Setting within Biblical Hebrew," *The Language of Qoheleth in Its Context: Essays in Honour of Prof. A. Schoors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eds. Angelika Berlejung and Pierre Van Hecke, OLA 164, Leuven: Peeters, 2007.
- _____, *A Linguis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ly Source and the Book of Ezekiel: A New Approach to an Old Problem*, CahRB 20, Paris: Gabalda, 1982.
- _____, *The Transition Period in Biblical Hebrew: A Study in Post-Exilic Hebrew and Its Implication for the Dating of Psalms*, Jerusalem: Bialik, 1972 [in Hebrew].
- Kim, Dong-Hyuk, *Early Biblical Hebrew, Late Biblical Hebrew, and Linguistic Variability: A Sociolinguistic Evaluation of the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VTSup 156, Leiden: Brill, 2012.
- Knohl, Israel,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Fortress, 1995.

- Labov, William,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Vol. 1, *Internal Factors*, Language in Society 20, Oxford: Blackwell, 1994.
- _____,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Vol. 2, *Social Factors*, Language in Society 29, Oxford: Blackwell, 2001.
- _____,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_____, *Sociolinguistic Patterns*, Conduct and Communication 4,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2.
- Milgrom, Jacob,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 New York: Doubleday, 1991.
- Miller-Naudé, Cynthia and Ziony Zevit, eds., *Diachrony in Biblical Hebrew*, LSAWS 8,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2.
- Nevalainen, Terttu, "Social Mobility and the Decline of Multiple Negation in Early Modern English," *Advances in English Historical Linguistics* (1996), eds. Jacek Fisiak and Marcin Krygier, Trends in Linguistics: Studies and Monographs 112, Berlin: M. de Gruyter, 1998, 263-291.
- Noonan, Benjamin J., *Advances in the Study of Biblical Hebrew and Aramaic: New Insights for Reading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2020; 『성서 히브리어와 아람어 연구: 언어학으로 새롭게 읽는 구약성서』, 신철호 역, 서울: 감은사, 2022.
- Polzin, Robert, *Late Biblical Hebrew: Toward an Historical Typology of Biblical Hebrew Prose*, HSM 12, Missoula, MT: Scholars, 1976.
- Rezetko, Robert and Ian Young, *Historical Linguistics and Biblical Hebrew: Steps Toward an Integrated Approach*, SBLANEM 9, Atlanta: SBL Press, 2014.
- Schniedewind, William M., "Linguistic Dating, Writing Systems, and the Pentateuchal Sources,"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Bridging the Academic Cultures of Europe, Israel, and North America*, eds. Jan C. Gertz, Bernard M. Levinson, Dalit Rom-Shiloni, and Konrad Schmid, FAT 111, Tübingen: Mohr Siebeck, 2016, 345-356.

Wardhaugh, Ronald and Janet M. Fuller,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7th ed., Blackwell Textbooks in Linguistics 4, Chichester: Wiley Blackwell, 2015.

Wellhausen, Julius, *Geschichte Israels*, Berlin: Reimer, 1878.

_____,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2nd ed., Berlin: Reimer, 1883;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trans. J. Sutherland Black and Allan Enzies, Edinburgh: Adam & Charles Black, 1885.

Wright, Richard M., *Linguistic Evidence for the Pre-Exilic Date of the Yahwistic Source*, LHBOTS 419, London: T&T Clark, 2005.

<초록>

라보브의 두 가지 언어 변화 유형에 근거한 후르비츠의 제사장 자료 연대 결정 평가

김동혁

(연세대학교 조교수)

후르비츠는 1982년 단행본 『제사장 자료와 에스겔서의 관계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의 논증을 통해 제사장 자료의 연대를 강제 이주기 이전으로 규정한다. 후르비츠는 제사장 자료와 에스겔서의 언어 특징을 비교하는데, 그에 따르면 총 30개의 언어 특징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제사장 자료의 것이 에스겔서의 것보다 앞선다. 에스겔서는 강제 이주기에 쓰였으므로, 제사장 자료는 강제 이주기 이전에 완성되었다고 후르비츠는 주장한다. 제사장 자료에 관한 후르비츠의 연대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서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후르비츠의 단행본을 종합적으로 비평한 연구는 없었다. 본 논문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다. 논문은 평가의 도구로서 사회언어학을 활용한다. 사회언어학은 1960년대에 생겨나 최근 들어 성서 히브리어학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사회언어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라보브의 두 가지 언어 변화 유형, 곧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는 후르비츠의 논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전자는 언어 내적 요인으로 생기는 자연스럽고 규칙적인 변화인 반면, 후자는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불규칙적이고 비체계적인 변화이다. 따라서 후자는 언어 변화의 정도를 충실하게 보여 주는 표지가 되지 못한다. 논문은 후르비츠가 제사장 자료와 에스겔서 간 언어적 대조로 다룬 30개의 언어 특징을 소개하

고, 각 항목에 관해 그것이 실제 언어 변화인지, 그 성격은 어떠한지를 논의한다. 논의의 결과는 후르비츠의 제시한 언어 변화의 증거 중 적지 않은 수가 위로부터의 변화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제사장 자료에 대한 언어학적 연대 결정이 그동안 생각돼 온 것보다는 탄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사장 자료의 (또한 다른 텍스트 단위의) 연대 결정은 텍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아울러야 할 것이다.

<Abstract>

Labov's Two Types of Language Change and Hurvitz's Dating of the Priestly Source

Asst. Prof. Dong-Hyuk Kim
(Yonsei University)

In his 1982 monograph, *A Linguis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ly Source and the Book of Ezekiel: A New Approach to an Old Problem*, Avi Hurvitz argues that the date of the Priestly source must be preexilic. Hurvitz compares the language of the Priestly source with that of Ezekiel and finds that all of the thirty linguistic features compared, the Priestly source unexceptionally uses a typologically earlier form than Ezekiel. Since Ezekiel was written during the exilic period, the Priestly source must be preexilic. Although many biblical scholars do not accept Hurvitz's dating of the Priestly source, there has not been a single study that has critiqued Hurvitz's monograph in depth. The present study is an attempt to fill this gap. In doing so, this study draws on the insights of sociolinguistics. Sociolinguistics emerged in the 1960s and is now actively applied to the study of Biblical Hebrew. In particular, one of its key concepts, Labov's two types of language change (i.e., changes from below and changes from above), provides important criteria for evaluating Hurvitz's discussion. Changes from below are internally induced, natural and regular changes, whereas changes from above are caused by external factors and are irregular and unsystematic. Accordingly, the latter are not reliable indicators

of the chronology of Biblical Hebrew. The study presents the thirty linguistic features that Hurvitz discusses as linguistic contrasts between the Priestly source and Ezekiel and discusses them by asking whether each feature is an authentic linguistic change and whether it is a change from below or from above. The result is that not a small number of Hurvitz's features are changes from above. Therefore, Hurvitz's dating of the Priestly source is not as solid as has been thought, and the dating of the Priestly source (and other textual units) must include as many aspects of the text as possible.